

## 일반 성인의 가정폭력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 사회적 지지로 조절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이 경 진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이 창 현<sup>†</sup>

하나임상심리연구소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공격성의 관계를 자기통제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성인 3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경험, 자기통제, 사회적지지, 공격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가정폭력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 경험이 자기통제를 통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기통제를 경유할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자기통제가 공격성으로 이어질 때 사회적 지지가 두 변인 사이를 조절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가정폭력 경험, 공격성, 사회적지지, 자기통제, 매개조절효과

<sup>†</sup> 교신저자: 이창현, 하나임상심리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64번길 21, 다 203

E-mail: diapanna@gmail.com



Copyright © 2023,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3년 8월 3일 ‘서현역 칼부림 사건’, 8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 10월 25일 ‘대전 칼부림 사건’ 등 잔혹한 사건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바 있으며(공감언론 NEWSIS, 2023), 국민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준 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격성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일깨워준 동시에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측면에서 공격성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다양한 정서를 지니며 이러한 정서들 가운데 분노 감정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경험하는 친숙한 감정으로 언어적 방식과 비언어적인 방식, 신체적인 형태로 발현하게 된다. 분노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행동으로 발산하는 형태를 통해 자신의 공격성을 표출한다. 이는 분노감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며(조명현, 2021). 공격성은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를 포함하며 언어적·신체적인 방식의 행동 표현과 잠재적으로 정신적·정서적·물리적인 해로움을 끼치는 행위를 나타낸다(신수진, 장혜인, 2021). 또한, 공격성은 사물 또는 상대에 대해 파괴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행위로서 욕설과 말다툼, 폭행의 유형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London et al. 2007).

이러한 공격적 행동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연령에 상관없이 각 계층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매년 두드러지게 상승하였다(고가영, 최웅렬, 2022). 한국 통계청에서 조사한 범죄유형별 범죄피해 건수와 피해율을 살펴보면 2012년 전체 피해 건수 중 폭행 추정 비율이 52%(221,256건)로 가장 높았고 이

후 최근까지 쪽 상위권을 유지하였으며 괴롭힘에 따른 범죄피해 건수도 2012년 추정 비율 1%(5,860건)에서 최근 2020년까지 11%(51,788건)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 이처럼 공격성은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그 파급력 또한 큰 것을 고려할 때 주요한 연구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 정서 조절, 부정적 정서, 사회적 기술 및 행동, 대인관계, 성역할 요인을 비롯해 성격, 기질, 욕구와 같은 특성 요인과 자아존중감 요인이 있다.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 양육 태도, 부모 애착, 가족지지와 같은 가족 요인과 또래 수용, 또래 동조성, 또래 애착과 같은 또래 관계 요인, 형제자매 갈등, 부모 갈등과 같은 가정 내 갈등 요인, 교사와의 갈등 요인, 성장환경 및 소득 수준 등의 기타 요인이 있다(최지영, 배라영, 2014).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큼이나 공격성과 관련된 이론 역시 상당히 다양하다. 기존의 이론에서는 주로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 및 분노 감정이 내현적 혹은 외현적 공격성으로 발현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Dollard 등(1939)의 좌절-공격성 이론에서는 개인이 겪는 좌절감과 욕구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 등이 공격성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생물학적 이론에서는 자율신경계의 낮은 활성화 및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축의 낮은 반응체계, 낮은 세로토닌 수치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 능력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적대적 자극에 쉽게 과민해지는 것이 공격성의 매커니즘이라고 설명한다(Baving, Laucht, & Schmidt, 2000; Davis, 2000;

McBurnett, Lahey, Rathouz, & Loeber, 2000). 한편,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인지적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오류와 편향, 즉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단서를 적대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김지현, 박경자, 2006).

최근 들어서는 심리적 통제, 거부, 학대, 제재와 같은 부정적인 부모 양육 태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 바, 특히 가정폭력 경험이 공격성 발달에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고가영, 최응렬, 2022; 박애리, 2014). 부모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경우, 타인과 관계 맺는 내적인 방식이 불안정하게 형성되고 공격적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고가영, 최응렬, 2022). 10대 초반부터 가정폭력을 다수 경험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격성 수준이 높고, 10대 초중반 시기 내내 공격성의 수준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며, 이후 4년간 추적한 결과에서도 여전히 높은 공격성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격성의 발달은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 경험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꾸준히 증가하고 문제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박애리, 2014).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정폭력과 공격성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어떠한 기제가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부족하고 더 많은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경험은 개인들의 자기 통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폭력을 경험한 개인은 자기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

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rewer et al., 2019).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했다고 느낄수록 자기통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경님, 2000) 가정폭력 경험은 약물 남용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조절 전략의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손상시키고(Willems et al., 2018) 정상적인 정서 조절 매커니즘 발달과 자기통제 능력의 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nkenauer et al., 2017). 이러한 자기 통제력은 공감, 자아존중감 등과 함께 공격성에 부적인 효과를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거론된다(김원영, 김경식, 2019). 아울러 기존의 연구들은 자기 통제력을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서도 제안하며 아동기, 청소년기와 같은 인간의 발달과정 중 자기통제가 증가할수록 공격성 감소를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리우위에, 정정희, 조하영, 2021; 김세경, 천성문, 2015).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충동성과 보복성을 조절하기 어려워 공격적인 행동 양상을 나타낸다. 강승미와 백진아(2019)에 따르면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 통제력이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아기 발달 시기부터 공격성에 대한 자기 통제력과 같은 조절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인임을 나타낸다. 또한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충동성과 보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 통제력의 감소가 공격성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시사되며(송진영, 2016) 이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과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관한 논문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결과다(강희양, 2021; 정용, 2018).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사회적인 지지는 공격적 행동의 발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보호 요인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나타낸다(남연주 등, 2022). 교사, 친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 및 대인관계를 통한 인적 지지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적 제공과 같은 도구적인 지지는 개인이 경험하는 안정감과 돌봄, 관심과 인정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며 가정폭력으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가 공격적 행동을 완화하는 데 유의하며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김나예, 2019).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공격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가 매개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진 결과들이 존재한다(Xie, et al., 2020; 주소영, 이양희, 2020). 즉, 공격성에 관한 개인의 구체적인 심리적 과정이나 개인별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하여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볼 때, 가정폭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자기 통제력이 매개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폭력의 경험이 자기통제를 매개하여 공격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명을 하였으나, 그러한 과정에서 경로의 강도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 즉, 가정폭력 경험으로부터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에 의해 자기통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이할 것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가정폭력 경험으로부터 공격성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자기통제가 유일한 경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개인차 변인에 의해 그러한 경로를 거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약해질 수 있다. 즉, 가정폭력 경험이 자기통제를 경유하여 공

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통제와 공격성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감안하면, 바로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경로를 조절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Xie, et al., 2020; 주소영, 이양희, 2020)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경험에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다는 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연구(Xie, et al., 2020; 주소영, 이양희, 2020)에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성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우며 성인들이 보이는 공격적 행동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성인들이 나타내는 공격성의 기제와 개인차를 검증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성인들이 가진 공격성에 대해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와 자기통제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모형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공격성을 행동화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전략을 구상하는데 기여하고, 사회 폭력 문제를 줄여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조절된 매개모형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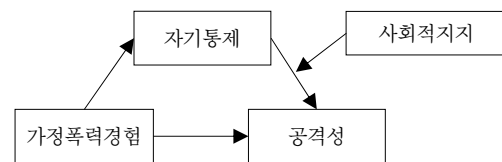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온라인 게시판 등에 설문 링크를 게시하는 등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기 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심리적 불편감을 느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설문 작성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경우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고 직접 동의에 체크한 후 설문 작성을 시작하였다. 설문 분량은 대략 10~15분 가량 소요되는 분량이었으며, 설문을 실시한 이후 감사 의미로 소정의 쿠폰을 제공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총 330부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부를 제외하고 316부를 최종적으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남자가 93명(29.4%), 여자 223명(70.6%)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47세 미만의 연령 범위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평균 연령은 28.76세(표준편차 6.11세)였다. 이중, 직장인은 210명(63.6%), 대학생 101명(30.6%), 무직자 28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서 여자가 다소 많았으며 이에 독립집단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에 대한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측정 도구

#### 공격성 척도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하고 권석만과 서수균(2002)이 타당화한 한국

판 공격성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의 하위 척도는 신체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으로 총 2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3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지지 척도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하위 영역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지지 7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으로 4가지 영역 총 25문항에 각각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 가정폭력 목격 및 경험 척도

Straus 등(1996)이 개발한 Conflict Tactics Scales 2: CTS 2)를 기초로 백경임(1998)이 우리나라에서 자녀용으로 수정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25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상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에 대해 폭력을 가한 주체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부친의 폭력과 모친의 폭력을 모두 합산한 총점을 사용한다. 척도의 응답 방식은 자기 경험 일치 여부에 따라 1점 '없음'에서 5점 '매우 자주'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 결과,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폭력 Cronbach's  $\alpha$ 는 .81이

고,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 자기통제력 척도

이경남(2000)이 개발한 '자기통제력 척도(Self Control Rating Scales: SCRS)'를 사용하였다. 자기통제에 대한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척도는 총 6개의 항목으로 사려숙고, 과제인내, 유혹저항, 정서통제, 친구관련 통제, 교사 관련 통제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42번 문항을 제거한 후 분석된 42개의 문항을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문항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였다. 각 문항은 '별로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개의 응답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 및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

석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의 가정폭력 경험, 공격성, 사회적 지지, 자기통제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뒤,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가정폭력 경험, 공격성, 사회적 지지, 자기통제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넷째, PROCESS Macro model 14를 적용하여, 조절된 매개 모형에 포함된 자기통제 및 공격성을 준거 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자기통제와 공격성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가정폭력 경험과 공격성 간 자기통제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등을 검증하였다.

### 결 과

우선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계수 및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표 1에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 $N = 316$ )

	1	2	3	4
1. 가정폭력	-			
2. 자기통제	-.327***	-		
3. 사회적 지지	-.257***	.503***	-	
4. 공격성	.422***	-.604***	-.256***	-
평균	98.51	40.22	2.37	.14
표준편차	121.34	16.98	.28	.14
왜도	96.40	16.25	-.75	.14
침도	67.63	17.26	.25	.14

\*  $p < .05$ , \*\*  $p < .01$ , \*\*\*  $p < .001$ .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은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순서대로  $r = -.327, p < .001$ ;  $r = -.257, p < .001$ ;  $r = .422, p < .001$ ). 아울러, 자기통제는 사회적 지지 및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각각 순서대로  $r = .503, p < .001$ ;  $r = -.604, p < .001$ ). 사회적 지지는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256, p < .001$ ). 한편,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추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므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CESS Macro model 14 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정폭력경험을 예언 변인으로 하고 자기통제를 준거 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는  $B = -.138(p < .001)$ 으로 가정폭력 경험은 자기통제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 경험, 자기통제, 부부 의사소통 만족도, 그리고 자기통제와 부부 의사소통 만족도 간의 상호작용항을 예언 변인으로 하고 공격성을 준거 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가정폭력과 사회적 지지는 공격성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각각 순서대로,  $B = .109(p < .001)$ ;  $B = .825(p < .01)$ ), 자기통제는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68, ns$ ). 아울러 자기통제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공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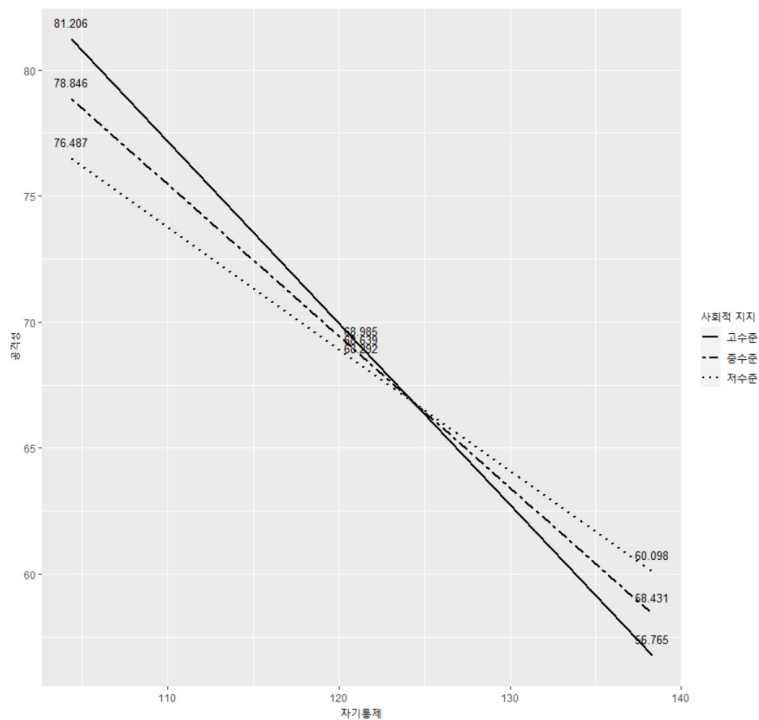


그림 2. 자기통제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표 2. 모형에 포함된 회귀분석 결과(N = 316)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t	R <sup>2</sup>	F
가정폭력	자기통제	-.138	.023	-6.138***	.104	37.678***
가정폭력		.109	.020	5.612***	.436	60.133***
자기통제	공격성	.068	.300	.226		
사회적 지지		.825	.335	2.458**		
자기통제×사회적 지지		-.006	.003	-2.180**		

\* $p < .05$ , \*\* $p < .01$ , \*\*\* $p < .001$ .

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B = -.006$ ,  $p < .01$ . 이는 자기통제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변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절 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위와 동일하게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해 나타난 예측 변인별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와 상수를 기반으로 원점수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해 평균에서 1 표준편차만큼 낮은 점수, 평균 점수 그리고 평균에서 1 표준편차만큼 위에 있는 점수를 각각 사회적 지지의 저수준, 중수준, 고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나온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오를수록(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갈수록) 비교적 부적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질

수록 자기통제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뜻한다. 즉, 자기통제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상태를 나타냈으며, 이는 자기통제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유의함을 표시한다.

다음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조절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어떠한 조건에서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자기통제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효과는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 평균 점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 모든 조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PROCESS Model 14번 모형 분석에서 제공되는 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3.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N = 316)

사회적 지지 수준	사회적 지지	B	S.E.	t
저수준(M-1SD)	80.152	-.483	.086	-5.635***
중수준(M)	96.402	-.601	.056	-10.794***
고수준(M+1SD)	112.652	-.720	.061	-11.875***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조절된 매개 지수의 유의성 검증(N = 316)

매개변수	조절변수	INDEX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Boot S.E.	LLCI	ULCI
자기통제	사회적 지지	.001	.000	.000	.002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

표 5.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N = 316)

사회적 지지 수준	사회적 지지	Effect	Boot S.E.	LLCI	ULCI
저수준(M-1SD)	80.152	.060	.015	.037	.095
중수준(M)	96.402	.074	.013	.052	.104
고수준(M+1SD)	112.652	.089	.015	.063	.120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

자기통제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이 각각 .000과 .002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특정 수준에서 자기통제에 의한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표 5),

가정폭력이 자기통제를 경유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인 조건과 평균 점수인 조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Effect=.060, 95% 신뢰구간: .037 ~ .095). 또한, 사회적 지지가 평균에 있는 점수 조건에서도 자기통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Effect=.074,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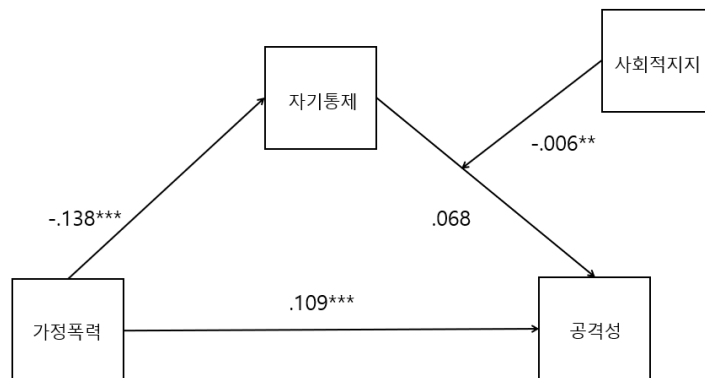


그림 3. 조절된 매개모형

신뢰구간: .052 ~ .104). 마지막으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인 조건에서 역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Effect=.089, 95% 신뢰구간: .063 ~ .120).

## 논 의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의 가정폭력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성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가정폭력이 자기통제를 경유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통제와 공격성의 사이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해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모형을 검증하였다. 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가정폭력 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나, 기존의 연구들은 교사, 양육자 등의 권위자나 애착을 중심으로 공격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이충권, 양혜린, 2017; 주소영, 이양희, 2015) 개인 내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폭력 경험이 공격성으로 발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애착과 같은 대인관계 요인뿐만 아니라 자기통제와 같은 내적 요인에서의 변화가 수반되며 이러한 변화가 결국 공격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자기통제력을 배양하는 개입을 포함하는 것이 공격성 감소에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자기통제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양한 선행 요인이 공격성 발생에 미치는 효과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완화되는 선행연구

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김나예, 2019; 홍상황, 박우람, 2016). 한편, 상호작용 양상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하여 조절 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올라갈수록(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갈수록) 자기통제 증가에 따라 공격성이 감소하는 부적 기울기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통제 증가에 따른 공격성 감소가 더욱 빠르게 나타남을 뜻한다. 개인이 지닌 자기통제 능력이 증가할수록 그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지만 그러한 양상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자신이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자기통제력이 증가할 때 공격성이 감소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양상을 나타낸다. 자기통제가 높은 수준일 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그림 2에서 알 수 있다. 요약하면, 개인이 지닌 자기통제력과 그가 나타내는 공격성 간의 관계는 그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강할수록 강해지며, 이로 인해 자기통제력이 높아질 때 공격성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반면, 자기통제가 낮은 수준일 때 사회적 지지의 고, 중, 저수준에 따른 공격성 수준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고수준인 집단의 공격성 점수가 가장 높고, 사회적 지지가 저수준인 집단의 공격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지닌 자기통제가 낮은 경우에는 그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오히려 공격성이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가정폭력 경험이 자기통제를 경유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사회적 지지

에 의해 조절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해 자기통제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이 가정폭력 경험으로부터 공격성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로이지만 그러한 경로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준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보다 각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그러한 경로를 경유할 가능성이 상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경험이 자기통제를 경유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수준, 평균 수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수준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고려할 때 특정 영역이 아닌 대부분 영역에서 가정폭력 증가, 자기통제 감소, 공격성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간접효과 크기가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볼 때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가정폭력이 자기통제를 경유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통제가 감소하며 그로 인해 결국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는 경로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조절 효과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지각할수록 그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 결과는 낮은 수준의 자기조절력을 지닌 사람 중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더욱 높은 공격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기존 결과와 일치한다(홍상황, 박우람, 2016). 홍상황과 박우람(2016)은 자기조절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사회적 지지가 오히려 공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사회적 지지 자원을 악용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가해 행동을 더욱 자주 표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Sijtsema 등(2008)에 의하면 일부 청소년들은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러한 지위 확보를 통해 가해 행동에 대한 동기가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는 공격성과 부적 관계를 가지지만(신명옥, 방해순, 2022; 정원철, 박선숙, 2015), 위에 제시된 연구 결과들은 낮은 자기통제력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격적 행동이 허용될 수 있다.’는 왜곡된 신념을 지닌 개인의 경우, 더욱 공격성을 드러내고 이러한 경향이 친구들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Slaby & Guerra, 1988; 임미옥 등, 2012). 이는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 간의 관계가 개인이 거처온 심리적 과정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반영된 특수한 심리적 과정은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자기통제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공격성이 증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즉, 가정폭력의 경험에 기인하여 형성된 왜곡된 신념, 특히 공격에 대해 허용적 신념과 이러한 신념이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손상될 때 그러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는 오히려 개인이 지닌 공격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Sijtsema et al., 2008).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가정폭력의 과거력을 지닌 사람이 공격성과 관련한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 무조건적 지지 혹은 주변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며 심지어 공격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자기통제력 수준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더불어 이를 향상할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본 연구 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경험이 자기통제를 경유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고 그러한 간접효과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격성이 나타나는 과정과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 내적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여 가정폭력 경험, 자기통제, 공격성, 사회적 지지의 네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조망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로 매개변인 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개인이 확보한 지지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에 관해 경험적인 연구를 토대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네 변인 간의 통합적인 조망은 공격성을 감소하기 위한 개입에 있어서 보다 확장된 시각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정폭력을 경험한 개인이 자기통제가 저하되면서 공격성이 증가하는 발달 경로가 존재하며, 그러한 경로의 발달이 사회적 지지를 촉진함에 따라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공격성을 가진 개인이 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공격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담 현장에서, 학대 및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상이 가해자가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공격적 행동에 대한 통제 소재를 개인에게 두고 조절력을 확보하는 자기통제 방식이 이차적인 피해와 부적응을 막을 수

있는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하며 가해자에 대한 개입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수준이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작동한다기보다 개인의 특성, 즉 그가 지닌 자기통제력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임상적 의의를 가진다. 사회적 지지가 자기통제력과 공격성 간 부적 관계를 강하게 만드는 결과에만 주목한다면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은 영역에서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가정폭력의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역시 상대적으로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공격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제약조건이 부과됨을 의미한다. 즉,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일정한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받는 지지는 자칫 공격성을 더욱 강화할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제공에 앞서서 자기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입이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울러 상담자 혹은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개인의 공격성에 미치는 제한적 조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경험자들을 대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사실을 과장 혹은 축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연구 대상자의 실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 및 공격성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방어적으로 응답하거나 과소 보고 하고 응답이 편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선 관찰 및 검사자의 평가와 같은 보조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가정폭력 대상자 혹은 피해자가 아닌 일반 성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학대, 가정폭력 환경에 처해 있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본 연구의 대상을 일반 성인으로 두되,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상으로 특정 대상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를 치료적 목적으로 활용하기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문제로 재판을 받은 자 혹은 유관 시설 이용자와 같은 임상군을 대상으로 측정함으로써 보다 임상적 가치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승미, 백진아 (2019).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9(10), 122-132.
- 강희양 (2021). 청소년의 욕설사용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시설환경*, 19(4), 33-42.
- 고가영, 최응렬 (2022).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16(2), 51-69.
- 공감언론 NEWSIS 인터넷 기사 (2023).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03\\_0002469970&cID=10301&pID=103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03_0002469970&cID=10301&pID=10300)
- 권석만, 서수균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1.
- 김나예 (2019).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10(4), 1423-1434.
- 김세경, 천성문 (2015). 자기통제력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가정환경 변인군과 개인심리 변인군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85-107.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영, 김경식 (2019). 학교폭력 가해행동 관련 억제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693-717.
- 김지현, 박경자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 김지혜, 전효정 (2021). 부부갈등이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변인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2(2), 109-134.
- 남연주, 유은식, 김한샘, 정선영, 강근모 (2022).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9(1), 1-28.

- 리우위에, 정정희, 조하영 (2021). 아동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변인 및 억제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6(2), 105-124.
- 박동주, 유미진 (2023). 국내외 관계적 공격성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 285-302.
- 박애리 (2014). 부모간의 폭력노출 및 학대받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0), 503-528.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경임 (1998). CTS(Conflict Tactics Scales) 2의 자녀용으로의 수정 및 한국 대학생에 대한 타당성 검증. *Human Ecology Research(HER)*, 36(2), 77-89.
- 서미정 (2015). 중학생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기본심리욕구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8(1), 53-69.
- 송진영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7), 29-58.
- 신명옥, 방해순 (2022).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20(10), 147-156.
- 신수진, 장혜인 (2021). 행동억제체계 및 행동활성화체계가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2), 391-414.
- 유신복,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기본심리욕구, 정서조절 및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8(1), 205-224.
- 윤수정 (2012). 영유아의 자기통제와 공격성 간의 교사-영유아관계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2(5), 145-161.
- 이경남 (2000). 아동의 자기통제적도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20.
- 이충권, 양혜린 (2017). 가정에서의 학대·방임 피해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9(1), 29-55.
- 임미옥, 송민경, 김청송 (2012). 청소년 특질에 기반한 분노, 사회적지지, 심리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7(2), 501-523.
- 장일순 (1990). 한국사회의 공격성 및 폭력 증가의 원인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회지(Journal of social science)*, 8, 311-341.
- 정 용 (2018). 태권도 수련 초등학생의 자기통제능력이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6(4), 497-508.
- 정원철, 박선숙 (2015).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교정복지학회*, (38), 219-242.
- 정현정, 김경성 (2009). 학교관련 심리변인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2(4), 351-378.
- 조명현 (2021). 특성분노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적 관여와 조망수용의 조절효과. *감성과학*, 24(1), 45-58.
- 조윤동, 김광웅 (2007). 아동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통제소재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3), 31-43.
- 주소영, 이양희 (2015). 가정폭력 경험이 공격

- 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와 또래 애착의 중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11), 299-336.
- 최정아 (2014). 초기 청소년기 공격성의 발달적 변화와 가족 영향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294-307.
- 최지영, 배라영 (201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3년. *인간발달연구*, 21(1), 181-200.
- 통계청 (2016, 2018, 2020) 2016년, 2018년, 2020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폭력범죄 유형별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한국형사·범무정책연구원. 2023. 7. 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3&tblId=DT\\_40301N\\_A003&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3&tblId=DT_40301N_A003&conn_path=I2)
- 홍상환, 박우람 (2016). 아동의 거부민감성, 우울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초등상담연구*, 15(3), 233-25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ving, L., Laucht, M., & Schmidt, M. H. (2000). Oppositional children differ from healthy children in frontal brain activ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267-275.
- Block, J., Block, J. H., & Keyes, S. (1988). Longitudinally foretelling drug usage in adolescence: Early childhood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precursors. *Child Development*, 59(2), 336-355.
- Brewer, K. T., Cochran, J. K., Powers, R. A., & Sellers, C. S. (2019).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the capacity and desire for self-control. *Taylor & Francis Journals from Deviant Behavior*, 40(7), 753-777.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1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Finkenauer, C., Buyukcan-Tetik, A., Schoemaker, K., Willems, Y. E., Bartels, M., & Baumeister, R. F. (2017). Examining the role of self-regulatory strength in family violenc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Self-Control in Health and Well-Being*, 13.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L.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 Olson, S. L., Bates, J. E., Sandy, J. M., & Lanthier, R. (2000). Early developmental precurs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19-133.
- Sijtsema J, Veenstra R, Lindenberg S, Salmivalli C. (2008). Empirical Test of Bullies' Status Goals: Assessing Direct Goals, Aggression, and Prestige. *Aggressive Behavior*, 35(1), 57-67.
- Slaby, R. G., & Guerra, N. G. (1988).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I.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4(4), 580-588.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U. E.,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rube, M. J. (1989). Evidence for the Type in Type A behavior: A taxometric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6), 972-987.
- Xie, Q., Bi, T., Du, Y., Kou, H., & Yang, B. (2020). Childhood maltreatment is associated with aggression among male juvenile delinquents in China: The mediating effe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self-control. *Frontiers in Psychology, 11*, 1664-1078.
- Willems Y. E., Jian-Bin L., Hendriks A. M., Bartels M., & Finkenauer C.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iolence and Self-Control in Adolescence: A Multi-Level Meta-Analysis. *Journal of IJERPH from family violence, 15*(11), 2468.

1차원고접수 : 2023. 09. 23.

심사통과접수 : 2023. 10. 13.

최종원고접수 : 2023. 12. 30.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aggression among adults in general: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moderated by social support**

kyoungJin Lee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Changhyun Lee

Hanaimsang Institute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self-control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aggression and verified whether social support moderated this mediating effect.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316 adults,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aggression.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aggression.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aggress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ath from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to aggression through self-control is moderated by the social support. Therefore, when a person who has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exhibits aggression, the provision of social support along with interventions including promotion of self-control may be useful.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Aggression, Social Support, Self-regulation, Mediating Effects*